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진,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 지원



강진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출산가정의 산후건강관리를 돕는다. 산후건강관리는 출산(예정) 3개월 전

출산용품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강진' 만들기 총력 기울일 것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라면 누구나 임부등록이 가능하며, 등록과 동시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 △출산용품 지원(1인당 1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및 감면료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 식품 지원 △산후 우울감사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등 다양한 모성 건강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빛가람 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지원, 고위험 산모를 위한 건강물품(혈압계, 혈당측정기) 대여 사업 등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포괄적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이외에도 등록임산부의 건강관

리를 위해 △임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임신제 및 철분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한편, 대면·비대면 임부 출산교실 등 모자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산후 육체적·심리적 건강회복에 대한 두려움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강진'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읍, 복지기동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집수리 재능 기부

저소득층 가구 2세대 방문하여 도배·장판 교체 사업 실시



장흥읍 복지기동대(대장 고승길)와 지

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장용, 강경일)는 지난 2일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 2세대를 방문하여 도배·장판 교체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장흥읍 복지기동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봉사자들은 재능 기부로 대상 가정을 방문해 도배·장판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주거 내·외부 청소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재능 기부 활동으로 도움을 받은 김모씨는 “도배·장판이 낡고 찢어져 있어서 흡이 방안으로 흘러들어 와 불쾌하고 불편했는데, 말끔하게 수리를 해 줘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장용 장흥읍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대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영암군 삼호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영암군은 삼호도서관이 올해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수행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동화구연과 만들기 문화 강좌를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공도서관 기반의 장애인 독서 활동 지원을 통해 정보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인식 환기로 지역사회 내 도서관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이 공모사업에 도내에서는 삼호도서관이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2017년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장애인 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등 장애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빛나는 이력을 가진 삼호도서관은 그 면모를 살려 내실있는 장애인 문화 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암=조대호기자

광양시, 반려 표고버섯 키우기 노인돌봄서비스

광양시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특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심화된 고립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반려 표고버섯 키우기 프로그램'은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의 하나로 3월 31일~4월 7일 실시 중이다. 버섯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나 재배 방

법을 몰라 구입해 먹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버섯 키트(종균이 심어진 버섯배지)에 하루 2~3번 물을 주고 가꾸며 어르신들이 손쉽게 버섯을 키울 수 있다.

프로그램은 특화전담사회복지사가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버섯을 잘 키우는 방법을 설명하고, 공통의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어르신들의 사회관계망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광양=심종섭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